

## 윤석열 옥죄는 내란 수사

검찰·공조본, '피의자' 소환 통보  
대통령실은 통지서 수령 거부  
尹, '수사기관 선택' 논란 불가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수사기관이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하는 등 압박을 가하고 있다. <관련기사 2·3·4·5·6·7면> 검찰과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각각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하고, 출석까지 요구하면서 수사의 칼날이 결국 윤 대통령의 턱끝까지 치달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을 선택해 출석하던 '수사기관 선택 쇼팽'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방문해 출석요구 통지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불발됐다. 공조본은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동시 발송한 만큼 전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공조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출석요구 통지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비서실에서 수령을 거부해 실패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황에서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게 비서실 업무인지 판단이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공조본은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를 찾아갔지만, 대통령 경호처 업무소관이 아니라며 역시 수령을 거부했다.

공조본의 출석요구통지서에는 내란·직권남용 혐의의 피의자로 윤 대통령이 적시됐다. 출석 요구 일시는 18일 오전 10시로, 장소는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 청사다. 윤 대통령이 30년 가까이 검사 생활을 하면서 검찰총장까지 지낸 만큼 공수처는 사실상 진정이나 마찬가지다.

공조본 관계자는 "대통령실과 관저에서 수령 거부를 당해 직접 전달하지 못 했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 대통령비서실 총무 비서관실에 특급등기를 통해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며, 절차나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공조본 관계자는 출석요구서 전달이 불발될 경우 긴급체포 등 강제구인 가능성도 있으나, 질문에는 "아직 검토 중인 것은 없다"며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검찰 비상계엄 특수수사본부(특수본)도 이날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정형식, 김복형, 김형두, 이미선, 정정미 헌법재판관. /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에 2차 출석요구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1일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윤 대통령에게 '15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등으로 첫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러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에게 동시에 출석을 요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이 어느 기관에서 조사받게 될지도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이 타당한 사유 없이 출석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조본이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현재 검찰과 공조본은 윤 대통령을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에 이어 헌법기관인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했다는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검찰과 공조본은 이미 내란 중요인물 종사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물론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광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조지호 경찰청장, 김복식 서울 경찰청장 등을 구속했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사실상 수사경쟁을 벌이고 있는 검찰과 공조본은 핵심 인물들에 대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헌재, 윤 탄핵심판 절차 27일 시작

주심 재판관에 정형식  
"6명으로 심리·변론 가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된다.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 재판관으로 지명한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심리를 진행한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관 전체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했다.

변론 준비기일은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재판이 진행되도록 양 당사자를 불러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 방법을 논의하는 절차다. 변론준비 기일은 오는 27일 오후 2시다.

헌재는 현재 접수된 탄핵사건 중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를 위해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현재 6명의 헌법재판관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헌재 대변인은 "총 9명 가운데 3명이 공석이지만 현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헌재는 "재판관들의 결정"이라는 이유로 주심 재판관을 비공개로 하기로 했지만, 무작위 추첨으로 정 재판관이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주심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들의 판단을 개진하는 평의에서 가장 먼저 의견을 밝히고, 평의를 거쳐 최종 평결이 내려지면 다수 의견을 기초로 결정문을 작성한다.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주심을 맡은 정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관 중 유일하게 윤 대통령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에 취임했다. 정 재판관은 서울고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근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대전고등법원장 등을 거쳤다. 정 재판관은 최근 윤 대통령이 임명한 박선영 진상·화해추진위원회가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처형으로 두고 있다.

헌재는 또 이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 재판관이 지정됐다고 밝혔다. 수명재판관은 재판에 앞서 사건 기초 조사를 진행하고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를 정리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변론준비절차에서는 2명의 수명재판관만 참여한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한동훈 대표 사퇴 ...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지도부가 출범 146일 만인 16일 물러나면서 여당의 한 대표 지도부가 공식적으로 막을 내렸다. 한 대표 사퇴로 권한대행을 맡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 절차를 돌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은 당 대표 또는 선출직 최고위원이 4명 이상 사퇴하는 경우 등에 있어 비대위를 가동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전원이 사퇴했고 한 대표

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사의를 밝히면서 비대위 구성 요건은 모두 충족됐다.

이 때문에 현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준비하기보다는 대선 경선 및 본선 관리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비대위 임기는 기본 6개월에 1회에 한해 6개월 연장이 가능하다.

비대위원장 후보군도 외부 명망보다는 당내 중진 의원 등이 우선 물망에 오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1 인터넷에 '전남일자리정보망' 검색**  
전라남도 일자리정보망

**2 민간·공공기관 일자리 정보 통합제공**  
고용24, 사람인, 나라일터, 전남도청 등 민간·공공기관 연계

**3 구직자 입장을 생각한 맞춤검색 기능 지원**  
근무지역, 희망직종, 경력, 학력, 고용형태, 희망임금

**4 채용정보 비교하기**  
원하는 채용 정보 선택 후 한눈에 비교 가능

**5 어디서든 쉽고 간편하게!**  
스마트폰 최적화 화면을 통해 어디서든 일자리정보망이용 가능